

21세기 100일전 기획 특집

■ 지식 기반 경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 조사

-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 대한 지식인들 인식의 9대 특징

- 첫째,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의 성립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 둘째,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한국은 정보통신 및 의약·생명공학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셋째,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소외’ 현상이다.
- 넷째, 국내 지식인들은 정부의 지식 창출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 다섯째, 국내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여섯째, 국내 지식인들은 자신의 현 위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봉사하길 원한다
- 일곱째,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신지식인 운동은 필요하며, 이는 관료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여덟째, 신지식인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 위주 사회로 변해야 한다
- 아홉째,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이상이 필요하다

-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 국내 지식인들이 지식 기반 경제 성립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자신있고 명확한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 지식 기반 경제에서의 정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부 내 신지식인 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부터 변해야 한다
- 교수나 연구원과 같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의 학술 지원과 R&D 개발책과 같은 지식 활용 및 창출 정책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서 예상되는 인간소외, 분배 격차 확대, 윤리관 타락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사회 의식과 관행을 학력 위주 사회에서 능력 위주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 지식 기반 경제가 성립되는 데 7년 이상 걸린다는 지식인들의 인식을 감안하여 보다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식 기반 경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 조사

- 지식 기반 경제 구축에 7년 이상 걸린다 -

「지식경제 리포트」에서는 21세기를 10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세가지 특집(지식인 인식 조사, Y2K, 21세기 21가지 특징적 현상)을 준비하여 연재할 계획임. 이의 첫 번째가 본 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국내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 대한 인식 상황과 지식 경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조사한 것임.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식인들이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구축이나 신지식인 운동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여기서는 설문 조사 결과 내용을 9가지 특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인문/ 경상/ 이공 계열 교수 및 각 연구소의 중견 연구원 125명
- 조사 기간: 1999년 9월 16~17일
- 조사 방법: 전화 및 팩스 조사

□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 대한 지식인들 인식의 9대 특징

- 첫째, 지식 기반 경제의 성립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 (21세기 경제의 키워드는 정보 지식화) 21세기 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키워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3.7%가 '정보·지식화'라고 응답하였음
 - 그 다음으로 글로벌화라는 응답이 20.3%를 기록하였고, 디지털화(11.4%), 광속화(5.7%), 서비스 소프트화(5.7%)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보 지식화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일반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지식인들이 21세기 환경 변화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1세기 국내 지식 기반 경제 성립에 대한 공감) 한편 국내 지식인들의 대다수가 21세기에 한국이 지식 기반 경제 사회로 이행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식 기반 경제를 '컴퓨터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지식의 창출, 유통 및 활용이 기업이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제'라고 정의한 후, 21세기에 한국이 지식 기반 경제 사회로 이행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다수(91.8%)가 적극 동의(28.7%) 또는 대체로 동의(63.1%)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이공 계통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가장 높은 적극 동의(34.8%) 의사를 표시함
- 동의하기 어렵거나(6.6%) 절대 동의할 수 없다(1.6%)라고 조사된 지식인들의 응답 이유는 대부분(60%)이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전이 경제 현상의 본질까지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으며 일부(30%)는 '원래 경제는 지식 기반적인 속성을 지닌 점'을 그 이유로 들었음

<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성립에 대한 인식도 조사 >

	21세기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					지식 기반 경제에 대한 공감도			
	디지털화	광속화	글로벌화	서비스/소프트화	정보 지식화	적극 동의	대체로 동의	동의하기 어려움	절대동의 못함
경상계열	14.3	2.4	11.9	9.5	59.5	23.8	71.4	4.8	0.0
인문계열	27.3	0.0	27.3	0.0	45.5	9.1	81.8	9.1	0.0
이공계열	7.1	8.6	24.3	4.3	51.4	34.8	55.1	7.2	2.9
총응답자	11.4	5.7	20.3	5.7	53.7	28.7	63.1	6.6	1.6

주: 부문별은 부문별 총응답자 중 비율(%)이고, 총응답자는 총응답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 둘째,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한국은 정보통신 및 의약·생명공학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지식 기반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부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야 2가지를 고르라는 설문에서 가장 많이 지목된(66.4%) 것이 정보통신 산업임
 - 다음으로는 의약·생명공학 부문(36.1%)이고 세 번째는 신소재(23.0%) 부문이었음
 - 이에는 응답자가 속한 분야별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인문 경상 계열의 경우는 대다수(78.8%)가 정보통신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대답한데 비해 이공계열의 경우는 정보통신 산업(57.1%), 의약·생명공학 분야(47.1%)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의약·생명공학 부문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한편 인문 계열 부문의 조사자들은 54.5%가 문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응답함

< 21세기 주력 산업 육성 분야 >

	기계 부품	신소재	우주항공	의약/생명공학	자동차	정보통신	환경 산업	문화 산업	사업지원 서비스
경상계열	19.5	17.1	0.0	22.0	4.9	82.9	4.9	4.9	24.4
인문계열	0.0	27.3	9.1	18.2	9.1	63.6	18.2	54.5	0.0
이공계열	11.4	25.7	1.4	47.1	7.1	57.1	28.6	8.6	7.1
총응답자	13.1	23.0	1.6	36.1	6.6	66.4	19.7	11.5	12.3

주: 부문별은 부문별 총응답자 중 비율(%)이고, 총응답자는 총응답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 셋째,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 소외’ 현상이다.
 - 지식 기반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현상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5.2%가 ‘인간 소외’를 들었음
 -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에 의한 가상 공간(syber space)의 실현이나 로봇의 발달과 같은 기술 문명의 발달이, 익명성(匿名性)과 비대면성(非對面性) 사회를 형성하여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을 노동 현장에서 밀어내는 현상들을 지식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밖에 빈부 격차(22.6%)와 윤리관 타락(16.9%) 등도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의 중요한 사회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었음

<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서의 사회 문제 >

	사회 문제				
	빈부격차	윤리관 타락	인간소외	세대간 갈등	지역격차
경상계열	23.3	18.6	37.2	16.3	2.3
인문계열	27.3	18.2	54.5	0.0	0.0
이공계열	21.4	15.7	48.6	10.0	1.4
총응답자	22.6	16.9	45.2	11.3	1.6

주: 부문별은 부문별 총응답자 중 비율(%)이고, 총응답자는 총응답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 넷째, 국내 지식인들은 정부의 지식 창출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 (학술 지원 및 연구 개발 정책 효과 회의적) 우선 지식 창출을 위해 그동안 이루어진 정부의 학술 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책이 효과적이었는가라는 설문에서도 대다수(76.4%)가 ‘효과적이지 못했다’(49.6%), ‘매우 비효율적이었다’(26.8%)라는 입장을 나타냈음
 - 특히 인문 계열의 경우에 조사자 모두가 효과적이지 못했거나(54.5%), 매우 비효율적이었다(45.5%)고 대답함
 - 정부의 연구개발 및 학술 지원책이 비효율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불충분한 지원(21.1%)보다는 ‘자원 배분의 불합리성’(36.7%)과 ‘진행 과정상의 관리 및 사후 평가 소홀’(31.1%)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음
 - 인문 계열의 경우 응답자의 54.5%가 자원 배분의 불합리성을 강조하였음. 이는 인문 계열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이공계열의 경우는 인문 사회 계열과는 달리 자원 배분의 불합리성(22.9%)보다는 진행 과정상의 관리 및 사후 평가 소홀(35.4%)과 불충분한 지원(29.2%)을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하였음
- 이는 이공계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제나 규모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고 또한 선정된 연구 과제의 철저한 관리와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부의 지식 창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

	학술 지원 및 연구개발 정책 평가		
	비교적 효과적	효과적이지 못함	매우 비효율적
경상계열	21.4	54.8	23.8
인문계열	0.0	54.5	45.5
이공계열	28.6	45.7	25.7
총응답자	23.6	49.6	26.8

주: 부문별은 부문별 총응답자 중 비율(%)이고, 총응답자는 총응답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 다섯째, 국내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충분한 능력 발휘가 안됨) 자신의 지식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이(66.9%) 70% 이하인 것으로 대답함. 특히 50% 이하라는 응답도 35.5%나 됨
 - 이는 국내 인적 자원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임
 - 한편 부문별로 70% 이상 자신의 지식을 활용한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이공계(26.6%)가 인문 경상 계열(17.0%)보다 높게 나타나 인문 사회 계열의 인적 자원 활용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분석됨
 - (고유 업무 이외 부담이 너무 많음) 자신이 가진 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거의(86.2%)가 고유 업무 이외의 잡무 부담(49.6%)과 경직적인 조직 문화(36.6%)를 지적함
 - 한편 정당한 보상 부족이라는 지적은 11.4%에 그쳐 국내 지식인들의 원활한 지식 활용과 창출을 위해서는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한편으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조직 문화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식의 활용 정도와 활용 및 창출의 장애 요인 >

	지식의 활용 정도						지식 활용 및 창출의 장애 요인			
	10% 이하	10-30 %	30-50 %	50-70 %	70-90 %	90% 이상	보상 부족	인프라 부족	잡무 부담	경직적 조직문화
경상계열	4.8	11.9	31.0	35.7	9.5	7.1	14.6	4.9	41.5	39.0
인문계열	0.0	9.1	18.2	54.5	18.2	0.0	18.2	0.08	54.5	27.3
이공계열	0.0	7.0	22.5	43.7	19.7	7.0	8.5	0.0	53.5	36.6
총응답자	1.6	8.9	25.0	41.9	16.1	6.5	11.4	1.6	49.6	36.6

주: 부문별은 부문별 총응답자 중 비율(%)이고, 총응답자는 총응답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 여섯째, 국내 지식인들은 자신의 현 위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봉사하길 원한다
-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받는 대우에 큰 불만은 없음) 지식인으로서 각 속한 조직으로부터 받는 대우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불만인 편(20.0%)이거나 매우 불만이다(11.2%)라는 응답은 전체의 31.2%로 나타나, 국내 지식인들은 적어도 자신이 받는 대우에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인문계열의 경우가 대우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불만인 편 18.2%, 매우 불만인 편 27.3%)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부문의 임금 수준이나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됨

< 대우에 대한 만족도와 해외 전직 유인 >

	대우에 대한 만족도				해외 전직 유인			
	매우불만	불만인편	그저그렇다	만족	절대 안감	더 많은 보수	현보수에서도 전직	더 낮아도 전직
경상계열	7.0	18.6	48.8	25.6	26.2	59.5	11.9	2.4
인문계열	27.3	18.2	27.3	27.3	9.1	63.6	18.2	9.1
이공계열	11.3	21.1	39.4	28.2	31.9	47.8	17.4	2.9
총응답자	11.2	20.0	41.6	27.2	27.9	53.3	15.6	3.3

주: 부문별은 부문별 총응답자 중 비율(%)이고, 총응답자는 총응답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 (동일한 조건이면 국내에서 활동함) 외국에서 귀하를 초빙할 경우에 현 직장을 그만두고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대다수가 전혀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27.9%)거나 보수가 현재보다 많아야 받아 들인다(53.3%)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음
- 이는 국내 지식인들이 동일한 조건인 한 국내에서 지식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함
- 일곱째,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신지식인 운동은 필요하며, 이는 관료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신지식인 운동 필요함) 학력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지식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자의 대부분(65.1%)이 절대 수긍한다(4.1%), 한국 사회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견해라 생각한다(61.0%)라고 응답하여 신지식인 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인문계의 경우에 72.1% 이상이 이해가 안간다(63.6%)거나 절대 수긍할 수 없다(9.1%)라는 부정적 반응을 나타냄. 이는 부가가치 개념을 실용성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절대 수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는 정부의 홍보성 전략이라는 비판적 견해(29.3%)보다는 개념이 불분명하다(46.3%)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 또한 인문 사회 과학이 퇴조할 수 있다라는 응답은 7.3%에 불과해 신지식인 운동이 인문 사회 과학 발전과 배치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지식인 운동의 필요성과 활성화되어야 할 부문 >

	필요성				활성화되어야 할 부문				
	절대수긍	필요한 견해	이해가 안감	절대 수긍못함	관료 사회	기업 부문	학계	연구계	언론계
경상계열	7.0	65.1	23.3	4.7	34.1	26.8	12.2	4.9	9.8
인문계열	0.0	27.3	63.6	9.1	77.8	11.1	11.1	0.0	0.0
이공계열	2.9	63.8	27.5	5.8	63.5	22.2	6.3	3.2	1.6
총응답자	4.1	61.0	29.3	5.7	54.0	23.0	8.8	3.5	4.4

주: 부문별은 부문별 총응답자 중 비율(%)이고, 총응답자는 총응답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 (신지식인 운동이 가장 필요한 곳은 관료 사회) 신지식인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부문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관료 사회라는 것이 5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 부문이 23.0%를 차지하였음
 - 그리고 학계(8.8%), 언론계(4.4%), 연구계(3.5%) 순으로 신지식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응답함
 - 관료 사회의 경우는 사고의 경직성을 바꾸어야 하고 기업 부문의 경우는 더 높은 부가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지식인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됨
- 여덟째, 신지식인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능력 위주 사회로 변해야 한다
- 신지식인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서는 학력 중시 사회 풍조에서 능력 위주 사회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47.3%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 비중을 기록한 것이 본인의 자세로 응답자의 30.4%가 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지식 인프라 확충으로 조사자의 17.9%가 이에 응답함
 - 이는 신지식인 운동이 단순한 홍보성 차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식을 변화시키는 한편으로 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줌

< 신지식인 운동의 성공 조건 >

	성공 조건			
	본인의 자세	처우 개선	지식 인프라 확충	사회 개혁
경상계열	31.7	4.9	14.6	43.9
인문계열	14.3	14.3	14.3	57.1
이공계열	31.3	0.0	20.3	48.4
총응답자	30.4	2.7	17.9	47.3

주: 부문별은 부문별 총응답자 중 비율(%)이고, 총응답자는 총응답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 아홉째,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이상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가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데는 몇 년이나 걸리겠는가라는 질문에서

- 는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냄
- 또한 6~7년이라는 응답이 37.2%, 3~5년이 13.2%로 적어도 우리 경제가 지식 기반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7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를 위한 제반 노력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해줌
 - 응답자를 구분해서 보면 이공계열의 경우가 6~7년 안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응답이 이 부문 전체 응답자의 52.8%를 기록하여 가장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인문계열의 경우는 이 기간 안에 이를 수 있다라는 데에 27.3%의 응답 빈도를 보여 지식 기반 경제 구축에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분석됨

<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 기간 >

	전환 기간		
	3~5년	6~7년	10년 이상
경상계열	17.5	35.0	47.5
인문계열	9.1	18.2	72.7
이공계열	11.4	41.4	47.1
총응답자	13.2	37.2	49.6

주: 부문별은 부문별 총응답자 중 비율(%)이고, 총응답자는 총응답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 보다 자신있고 명확한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 대한 비전 제시와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국내 지식인들이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와 신지식인 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또한 지식 기반 경제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의회, 기업, 시민단체 등의 상호 협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특히 정권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식 기반 경제 구축을 위한 각계 각층의 공동 인식과 협약이 필요함

- 정부부터 변해야 한다

- 지식 기반 경제에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 개혁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함
- 또한 신지식인 운동이 관료 사회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지적을 감안하여 정부 내 신지식인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들을 설정해야 함

- 지식인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의 지식 활용 및 창출 정책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 지식인들이 국내에서 자신의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고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하며 연구 개발 및 학술 지원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구상이 필요함
- 특히 지원의 과다보다는 합리적 지원과 지원된 자원의 효과적 관리가 보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위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인간 소외, 빈부 격차, 윤리의식 타락과 같은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서 초래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지식 기반 경제에 대한 적응책과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사회 의식과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 학력주의와 연고주의와 같이 사회 변화의 흐름을 막는 과거 의식과 관행을 능력 위주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스스로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사회 의식과 문화를 조성해 나감

■ 유병규 연구위원 bkyoo@hri.co.kr ☎724-4060